

금호타이어, 벤츠에 타이어 공급 확대

5월부터 중형 밴 <스프린터>용으로 ... 교체용 시장 매출증가도 기대

금호타이어는 유럽과 북미에서 판매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밴인 <스프린터>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벤츠의 승용차 <A-클래스>와 다목적 밴 <비아노>, 트럭 <악트로스>에 이어 상업용 중형 밴까지 라인업이 확장됨에 따라 타이어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벤츠에 대한 공급확대로 해외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물론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의 매출 파급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벤츠의 다른 프리미엄 자동차에 공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북미 빅 3와 유럽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등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완성차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2>